

노인주거에 관한 中年層의 住要求

—Housing needs for the Elderly in Reference to the Middle-Aged—

건국대학교 생활문화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全明淑

연구조교 趙鉉京

부 교수 姜淳柱

Dept of Home Economics and Management, Kon-Kuk University

Lecturer Myoung Suk Jun

Research Assistant Hyeon Kyeong Cho

Associate Professor Soon Joo Kang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using needs for the elderly in reference to the middle-Aged, the relationship of their housing needs with demographic variabl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esired distance from their residence to children's house is about half an hour to one hour by car. White color employees are more declined to living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than blue color.

Most of them like to depend on pensions for living expenses.

2. The favorite housing plans are listed in the order of self-contained unit(50.7%), intermediate care housing(38.6%) and living with their children(10.7%). This tells that the prospective elderly likes to live independently from their children and suggests the need for housing plans for elderly people.

3. Women are highly interested in both interior and exterior housing environment. People who are active in their everyday life tend to show more interests in interior facilities and space arrangements of their house, transportation, and neighboring environments.

I. 序 論

1. 문제제기 및 研究目的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 급진적인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노인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권위와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고립, 소외, 고독, 경제적 어려움, 병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가족 및 생활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종전에는 가족내에서 해결하려던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 사회개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과거의 사적인 부양의식이 자식과 국가의 동시 책임 내지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는 부양의 근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 가족계획의 과급과 출산조절 기술의 발달로, 출생아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대적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기획원(1990)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전체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72.7세로, 노인인구의 비율(65세 이상)은 6.3%정도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절대적 고령화도 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지만 10년후에는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어짐으로 이에 따른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 건강유지 그리고 가정의 소규모화에 의한 부양능력의 저하 등 사회분제가 점차 심각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의료, 복지등의 재분야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김태일 1992).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의 성격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성격에서 점차 고학력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의미있는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의 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노인별거세대의 증가추세와 현재 젊은 세대의 별거의식으로서 인하여 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에 따른 여러수준의 노인주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에 따른 여러수준의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양로원 희망자를 위해 시설양로원이나 유료양로원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지순 1978: 고영복 1985: 연세대 탐 1985: 강원필 1989: 고성룡 1990: 김태훈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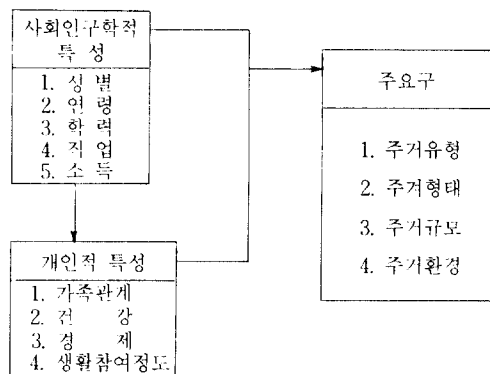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전명숙·강순주 1992)의 후속연구로서 노인거주분제의 필요성과 그 해결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대의 노인세대가 될 현재 40-50대의 중년층의 주요구를 중심으로 노인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가족관계, 건강, 경제, 생활참여정도등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노인주택에 관한 주요구를 주거유형, 형태, 규모, 주거환경 등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3)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이 주거환경요구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주요구 관련인자에관한 기존연구 고찰

1) 가족관계특성

자녀와의 同·別居의식, 자녀와 따로 살 경우의 접촉거리, 접촉빈도에 관한 기존연구(박광모, 강복수, 이성관, 1983: 차미란, 1984: 연세대팀, 1985)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은 분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분가를 달갑지않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자녀와 따로 살 경우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곳에 결혼시키거나, 거주하게 하여 연락이 긴밀히 유지되면 노후 부모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林玉子(1986)에 의하면 노인에게는 가족이나 친지와와의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지역범위 안에서 다양한 선택성이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와 노인의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이 편리할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omley(1972)는 물리적 거리가 접촉의 빈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ohn B. Williamson(1980)에 의하면 미국에서 노부모의 84%는 한 자녀와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85%는 적어도 주1회정도 한 자녀를 만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인 자녀들은 부모를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부모를 방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경우에 자녀의 가족과 근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이 62%를 차지하고 있다.(黑田後夫 1978).

2) 건강특성

노년기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건강의 유지'이다. 이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하며 자기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중년기 이후 노년기 전반에 걸쳐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욕구이다(연세대팀, 1985).

노화에 따른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 노인은 일반적으로 건강유지에 취약하며, 성인에 비해 유병율도 높다(고성룡 1990). 노인의 수입부족은 적합한 의료보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 보호문제를 노인의 주거환경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관리인을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병이 났을때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의료시설이 근접한 노인주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주택은 노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특성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은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여가활동 및 자아실현과 관련된 욕구의 충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생물학적 노화와 노동능력의 저하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용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근로수입의 격감,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개인적인 노후대책의 미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Chatfield(1972)는 소득이 적으면 자신이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계속 불만스러운 주거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광경숙(1982)에 의하면 노후생계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노인의경우 46.7%, 장년층은 83.8%, 청년층은 90.0%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단독가구의 가장 주된 생활비 마련방안은 '근로수입'이 44.6%로 가장높고, 그 다음이 '자녀원조' 28.8%, '재산소득' 10.2%로 나타나 이 3가지 생활비 마련 방법이 84%정도에 이르고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4) 생활참여정도

노인의 흥미를 자극하고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여가생활은 노인에게 창조의 기회, 문화적, 정신적 자

극, 하루를 채울 의미있는 활동, 새로운 취미 및 흥미, 신체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노인주거단지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주장한다(차미란 1984). 그러나 남재락(1983)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일상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에서 여자노인은 산보가 9.5%, TV와 라디오 시청이 20.7%, 낮잠이 27.6%, 친구와 잡담이 3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노인의 경우는 장기 바둑이 12.3%, 낮잠이 13.4%, TV와 라디오시청이 16.2%, 친구와 잡담이 25.4%로 가장 많이 나타나 생활참여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유익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는 생활의 단조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2. 노인의 주요구를 고려한 주거환경

주요구는 주거에 대한 잠재의식이 구체적인 주의견으로 나타나 현재의 주생활에 대한 모순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요구가 현실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주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扇田信 1972; 西山朋三 1977). 노인의 주요구는 노인이 됨으로서 변화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주요구는 근거리에서 살면서 분가된 상태에 놓여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언제라도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나 노인정같은 외부공간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권영규 1982).

또한 노인은 되도록 일반주거 안에서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다. 또 자택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 서비스를 부설한 중간형태의 주택이 있으면 하루라도 더욱 오래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林玉子 1986).

노후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주택유형은 과거에는 단독주택이었으나, 노부부만 살고 있는 가정은 난방 및 방범등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생활주택을 단독주택단지로 형성

할 경우는 아파트가 지니는 관리상의 장점을 보완시켜 계획해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는 편리와 경제성을 위해 소규모이고 밀집하여야 하며, 최대의 안정성을 위해 내화성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주택관리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노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연세대팀 1985).

노인은 정신적으로 고정화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노인을 위한 건축환경 설계는 신체적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은 물론 고독, 소외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이재훈 1984).

또한 노인들은 과거의 추억에 애착이 강하여 물건을 버리지 않는 습성이 강하므로 Lawton(1975)은 노인들에게 충분한 수납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은옥(1987)의 조사에서도 노인들의 수납공간과 정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규모에 대한 연구로는 관리면에서 젊은층보다는 소규모의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연세대팀(1985)에서는 상류층 노인대상이 건평 20-40평의 단독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근교의 전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공기가 맑은 곳에서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문헌을 통해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주요구 관련인자와 노인특성을 파악하여 그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8문항, 개인적 특성에 관한 6문항, 주요구에 관한 39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을, 종속변수는 개인적 특성(자녀와의 접촉거리, 건강, 노후생계대책, 생활참여정도), 주요구(주거유형, 주거형태, 주거규모, 주거환경)로 분류하였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는 7점 척도화하여 35개 문항간 측정치의 신뢰도를 본결과 Cron-

bach α 값이 자녀 친지와 의 접촉거리 0.65, 근린생활 시설 0.80, 교통 및 주변환경 0.57, 공공 및 교육시설 0.63, 내부시설 0.65, 공간계획 0.66, 안전시설 0.54로서 신뢰도가 인정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처리,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노인에 해당하는 중년층(45세-65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4월5일-15일)를 거쳐 수정된 설문지로 5월1일에서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강남·강북지역에 각각 150부씩 배부(총 300부)하였다. 이 중 257부가 회수(회수율 85.7%)되었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23부만을 최종 유효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 t-test, 분산

분석, 집단간의 차이 검증을 위한 DMR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여가 각각 50.2%, 49.8%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현재의 노인보다는 중년층의 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므로 50대 이하가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51세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53.0%이고 평균학력이 13.51년으로 높은 학력을 나타냈고, 직업은 자영업(18.0%)이나 전문직종사자(18.0%), 행정·사무직(15.3%)이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여성들은 대부분 주부들이었다. 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3

변인		구분	N(%)	요인		구분	N(%)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성 별	남	112(50.2)	주 택 특 성	주 택 형태	단 독	102(45.7)	
		여	111(49.8)			아 파트	99(44.4)	
	연 령	40대	107(48.0)			연 립	22(9.9)	
		50대	92(41.3)		가 구 주	본 인	118(53.2)	
		60대	24(10.8)			배 우 자	96(43.2)	
	Mean	51세	아 들			6(2.7)		
	학 령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이상	43(19.5)		기 타	기 타	2(0.9)	
			61(27.6)			주 택 소 유 형 태	자 가	182(81.6)
			91(41.2)				전 세	29(13.0)
			26(11.8)				자녀부부명의 월 세	6(2.7)
Mean	13.5년	기 타	2(0.9)					
직 업	자영업	40(18.0)	a. 각 표본의 합계는 무응답에 의해 차이가 있다.					
	전문직	40(18.0)						
	행정·사무직	34(15.3)						
	고용·기능직	19(8.6)						
	주부·기타	89(40.1)						
소 득	100만원 이하	70(32.4)						
	101~150만원	57(26.4)						
	151~200만원	43(19.9)						
	201만원 이상	46(21.3)						
	Mean	183.76만원						

하였으며 평균소득은 183.76만원으로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15.86만원(대한통계협회 199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 주택형태는 단독(45.7%)이나 아파트(44.4%) 거주자가 대부분이었고 가구주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체의 96.4%를 차지하였으며,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8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세(13.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가족관계, 건강, 경제, 생활참여 정도 등의 네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사회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건강, 경제 특성

노후의 자녀와의 희망 접촉거리나 접촉빈도로 알아본 가족관계특성과 건강상태, 노후생계대책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녀와의 희망 접촉거리에서는 성별($p < .05$), 학력($p < .001$), 직업($p < .001$), 소득($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차로 30분 정도 (35.5%)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차로 1시간(33.2%) 이상으로 나타나 비슷하였고, 같이 산다는 16.4%에 불과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차로 30분 정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특성

N = 223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적특성		가족관계특성			
		자녀와의 접촉거리				D·F	χ^2
구분		같이산다	걸어서 10분정도	차로 30분정도	차로 1 시간 이상		
성별	남	26(23.4)	16(14.4)	32(28.8)	37(33.3)	3	*
	여	10(9.2)	17(15.6)	46(42.2)	36(33.0)		
학력	중졸이하	11(25.6)	0(.0)	13(30.2)	19(44.2)	9	***
	고졸	10(16.4)	4(6.6)	23(37.7)	24(39.3)		
	대졸	14(15.6)	22(24.4)	34(37.8)	20(22.2)		
	대학원졸이상	1(4.2)	7(29.2)	8(33.3)	8(33.3)		
직업	자영업	10(25.0)	8(20.0)	4(10.0)	18(45.0)	12	***
	전문직	5(12.8)	13(33.3)	11(28.2)	10(25.6)		
	행정·사무직	5(14.7)	6(17.6)	13(38.2)	10(29.4)		
	고용·가능직	4(21.1)	0(.0)	10(52.6)	5(26.3)		
	주부·기타	12(13.8)	6(6.9)	40(46.0)	29(33.3)		
소득	100만원 미만	12(17.1)	2(2.9)	21(30.0)	35(50.0)	9	***
	101~150만원	11(20.0)	7(12.7)	17(30.9)	20(36.4)		
	151~200만원	6(14.3)	10(23.8)	15(35.7)	11(26.2)		
	201만원 이상	5(10.9)	13(28.3)	23(50.0)	5(10.9)		
전체계		36(16.4)	33(15.0)	78(35.5)	73(33.2)		

*** $p < .001$ ** $p < .01$ * $p < .05$

각 표본의 합계는 무응답에 의해 차이가 있다.

도를 원하는 응답자가 42.2%로 가장 많았으나 같이 산다는 경우는 여성(9.2%)보다는 남성(23.4%)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학력에서 중졸이하는 차로 1시간 이상(44.2%)을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같이 살기를 원하는 응답자도 25.6%나 되어 고졸이상 학력자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직업에서는 전문직 및 행정·사무직인 화이트 칼라층의 80% 이상이 자영업, 고용기능직보다 동거의식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소득에서는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차로 1시간 이상을(86.4%)을 원하였고 151만원 이상인 경우는 차로 30분(85.7%)를 가장 선호하였다(표2).

건강특성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절문한 것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이는 성별(p<.01), 학력(p<.001), 직업(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74.1%)이 여성(54.1%)보다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행정·사무직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경제특성인 노후생계대책은 연금(35.6%)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재산소득

(23.0%)이었다. 이는 성별(p<.05), 연령(p<.01), 학력(p<.001), 직업(p<.001), 소득(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34.8%), 여성(36.4%) 모두 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나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는 남자(10.7%)가 여자(5.5%)보다 높아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술한 남자의 자녀동거의식이 높은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40대(37.7%)나 50대(37.0%)는 연금에 의존하려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도움(29.2%)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지금의 40-50대의 중년층은 나름대로 노후대책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력은 중졸이하는 근로소득(31.0%)이나 자녀의 도움(23.8%)을 기대하고 있으며, 고졸(31.1%), 대졸(44.0%), 대학원졸 이상(69.2%)에서는 연금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은 근로소득(40.0%)이나 재산소득(32.5%)을, 전문직(77.5)과 행정·사무직(58.8%)은 연금을 생각하고 있으며, 고용·기능직은 근로소득(52.6%)을 주부·기타는 재산소득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특성

N = 223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건강상태			
구 분		건강하다	건강하지않다	D·F	χ ²
성 별	남	83(74.1)	29(25.9)	1	8.89
	여	60(54.1)	51(45.9)		
학 력	중졸이하	17(39.5)	26(60.5)	3	20.46
	고졸	37(60.7)	24(39.3)		
	대졸	65(71.4)	26(28.6)		
	대학원졸이상	23(88.5)	3(11.5)		
직 업	자영업	26(65.0)	14(35.0)	4	17.70
	전문직	30(75.0)	10(25.0)		
	행정·사무직	30(88.2)	4(11.8)		
	고용·기능직	10(52.6)	9(47.4)		
	주부·기타	46(51.7)	43(48.3)		
전 체 계		143(64.1)	80(35.9)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특성

N = 223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개인적특성		경제 특성					χ ²
		노 후 생 계 대 책							
		구 분	근로소득	연 금	재산소득	저 축	자녀의 도 움	D·F	
성별	남	30(26.8)	39(34.8)	20(17.9)	11(9.8)	12(10.7)	4	9.91	
	여	16(14.5)	40(36.4)	31(28.2)	17(15.5)	6(5.5)			
연령	40대	18(17.0)	40(37.7)	30(28.3)	12(11.3)	6(5.7)	8	22.94	
	50대	24(26.1)	34(37.0)	18(17.6)	11(12.0)	5(5.4)			
	60대	4(16.7)	5(20.8)	3(12.5)	5(20.8)	7(29.2)			
학력	중졸이하	13(31.0)	2(4.8)	9(21.4)	8(19.0)	10(23.8)	12	51.73	
	고졸	16(26.2)	19(31.1)	15(24.6)	6(9.8)	5(8.2)			
	대졸	13(14.3)	40(44.0)	24(26.4)	12(13.2)	2(2.2)			
	대학원졸이상	4(15.4)	18(69.2)	2(7.7)	2(7.7)	0(.0)			
직업	자영업	16(40.0)	3(7.5)	13(32.5)	3(7.5)	5(12.5)	16	91.10	
	전문직	6(15.0)	31(77.5)	2(5.0)	1(2.5)	0(.0)			
	행정·사무직	3(8.8)	20(58.8)	7(20.6)	4(11.8)	0(.0)			
	고용·기능직	10(52.6)	2(10.5)	2(10.5)	2(10.5)	3(15.8)			
	주부·기타	11(12.5)	22(25.0)	27(30.7)	18(20.5)	10(11.4)			
소득	100만원 미만	22(31.4)	15(21.4)	12(17.1)	9(12.9)	12(17.1)	12	33.53	
	101~150만원	6(10.5)	25(43.9)	16(28.1)	7(12.3)	3(5.3)			
	151~200만원	7(16.3)	23(53.5)	8(18.6)	5(11.6)	0(.0)			
	201만원 이상	11(23.9)	16(34.8)	14(30.4)	4(8.7)	1(2.2)			
전 체 계		46(20.7)	79(35.6)	51(23.0)	28(12.6)	18(8.1)			

*** P < .001 ** P < .01 * P < .05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층이 근로소득(31.4)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녀의 도움도 17.1%를 나타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연금(34.8%) 재산소득(30.4)의 순으로 노후생계대책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표4).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정도 및 생활참여정도

노인들의 건강관리정도와 생활참여정도가 사회인

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 한하여 DMR검증을 한 결과(표 5, 6)과 같다.

(1) 건강관리정도

건강관리정도는 적극적 건강관리와 소극적 건강관리¹⁾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소극적 건강관리 정도의 점수가 적극적 건강관리 점수보다 높았는데 적극적 건강관리의 경우 성별(p<.001), 연령(p<.01), 학력(p<.001), 직업(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1) 적극적 건강관리란 식이요법, 정기적 건강진단, 규칙적 운동을, 소극적 건강관리란 과로를 피하고 휴식, 간단한 운동 정도를 7점 척도와 하여 분석 하였다.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정도

N = 223

사회인구학적특성		개인적특성	건강 관리 정도				
			적극적 건강관리정도			소극적 건강관리정도	
변인	구 분	M	F(T)	DMR	M	F(T)	DMR
성별	남	3.48	***		4.64	***	
	여	2.76	3.90		3.65	4.60	
연령	40대	2.93	**	A	3.89	2.38	
	50대	3.47	4.86	B	4.39		
	60대	2.72		A	4.27		
학력	중졸이하	2.66	***	A	4.11	0.55	
	고졸	3.04	5.74	A	3.90		
	대졸	3.15		A	4.23		
	대학원졸이상	4.03		B	4.26		
직업	자영업	3.03	*		4.50	*	
	전문직	3.35	2.59		3.87	2.69	A
	행정·사무직	3.61		B	4.79		B
	고용·기능직	3.44			3.97		
	주부·기타	2.83		A	3.88		A

*** P < .001 ** P < .01 * P < .05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참여정도

N = 223

사회·인구학적특성		개인적특성	생활 참여 정도								
			일상활동			종교·사회봉사활동			사교·스포츠·레저활동		
변인	구 분	M	F(T)	D	M	F(T)	D	M	F(T)	D	
성별	남	3.65	0.58		2.64	***		3.64	1.73		
	여	3.54			3.34	-3.31		3.30			
학력	중졸이하	3.17	*	A	3.05			2.88	***	A	
	고졸	3.54	3.12		2.85	1.18		3.15	6.41	A	
	대졸	3.70		B	2.92			3.75		B	
	대학원졸이상	4.11		B	3.52			4.07		B	
소득	100만원 이하	3.74			3.13			3.23	**	A	
	101~150만원	3.62	0.25		2.53	2.54		3.18	3.94	A	
	151~200만원	3.66			3.33			4.01		B	
	201만원 이상	3.52			3.15			3.71			

*** P < .001 ** P < .01 * P < .05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높았으며, 연령은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DMR 검증의 결과 다른 집단들과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대학원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정도의 점수가 높

게 나타나 건강관리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MR검증에 있어서는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과 그밖의 집단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행정·사무직 종사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주부가 가장 낮았다. DMR검증에서도 이 두 집단만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극적 건강관리정도는 성별($P<.001$), 직업($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행정·사무직의 건강관리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DMR검증 결과 행정·사무직집단은 전문직집단 및 주부·기타집단과 차이를 보였다(표 5).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적극적인 건강관리보다는 소극적 건강관리에 더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64.1%의 응답자가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생활참여정도

생활참여정도는 일상활동, 종교·사회봉사활동, 사교·스포츠·레저활동 등으로 7점 척도화하여 분석하였다(표 6).

일상활동은 학력($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졸 이하일 경우 참여도가 가장 떨어지며 대학원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DMR검증의 결과 중졸이하의 집단과 대졸 및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종교·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성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충실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교·스포츠레저활동은 학력($p<.001$)과 소득($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MR검증에서 학력은 중졸이하 및 고졸의 집단과 대졸 및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이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 및 101-150만원 집단과 151-200만원 집단이 차이를 보였는데 151-200만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住要求

노인주거에 관한 주요구는 주거유형, 주거형태, 주거규모, 주거환경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諸要因에 따른 노인 주거유형 및 주거형태

주거유형 및 형태의 요구가 제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1) 주거유형 및 주거형태

주거유형은 노인의 자립정도에 따라 노인자립주택, 중간보호주택, 노인시설주택²⁾ 자녀와 동거의 네가지로 나누어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와의 접촉거리($p<.001$), 노후생계대책($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노인자립주택(50.2%), 중간보호주택(38.9%), 자녀와 동거(10.9%)의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노년층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시설주택은 응답자가 2인뿐이어서 통계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노인시설 주거에 대해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나타낸 결과이다.

노후 자녀와의 희망접촉거리에 있어서는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는 자녀와 동거를 44.4%가 원하고 있으며, 걸어서 10분 정도일 경우는 중간보호주택(54.5%)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로 30분 정도(48.1%)와 차로1시간 이상(61.1%)일 경우에는 노인자립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후생계대책별로 보면 재산소득 및 근로소득의 경우는 노인자립주택을 58.8%, 54.3%로 많이 선호하는데 비하여 연금의 경우는 중간보호주택(45.6%)과 노인자립주택(45.6%)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노인자립주택과 자녀와 동거가 각각 37.5%로 같게 나타났다(표 7).

노인 주거유형과 주거형태의 관계를 보면 노인자

2) 노인주거유형의 분류는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전명숙, 강순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6호, 1992)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표 7〉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인주거유형

N = 223

개인적 특성			주 거 유 형				
특성	변 인	구 분	노인자립주 택	중간보호주 택	자녀와 동 거	D · F	χ^2
개인적 특성	자녀와의 접촉거리	같이산다	13(36.1)	7(19.4)	16(44.4)	6	** 55.22
		걸어서10분정도	15(45.5)	18(54.5)	0(.0)		
		차로30분정도	37(48.1)	36(46.8)	4(5.2)		
		차로1시간정도	44(61.1)	24(33.3)	4 (5.6)		
	노후생계 대책	근로소득	25(54.3)	17(37.0)	4(8.7)	8	* 19.01
		연 금	37(46.8)	36(45.6)	6(7.6)		
		재산소득	30(58.8)	19(37.3)	2(3.9)		
		저 축	13(46.4)	10(35.7)	5(17.9)		
		자녀의 도움	6(37.5)	4(25.0)	6(37.5)		
전 체 계			111(50.2)	86(38.9)	24(10.9)		

*** P < .001 ** P < .01 * P < .05

〈표 8〉 노인주거유형에 따른 주거형태

N = 223

주거유형	주거형태			χ^2	d.f.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노인자립주택	67(30.0)	39(17.5)	6(2.7)	**	4
중간보호주택	18(8.1)	50(22.4)	16(7.2)	35.27	
자녀와 동거	15(6.7)	8(3.6)	1(0.4)		

*** P < .001 ** P < .01 * P < .05

립주택인 경우는 단독주택(30.0)의 주거형태를 선호하며, 중간보호주택인 경우는 아파트(22.4%)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8).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노인주거 계획시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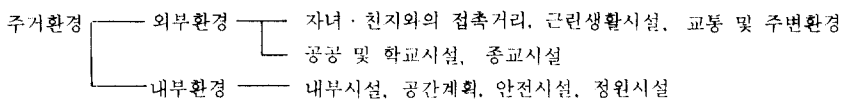
2) 제 요인에 따른 주거규모 및 주거환경의 요구
주거규모 및 주거환경의 요구가 제요인에 의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 한하여 DMR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1) 주거규모

노인주거규모의 전체적인 희망평균 규모는 27.7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p<.05), 생활참여정도(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1만원 이상의 응답자가 요구하는 규모가 가장 컸으며 생활참여정도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가장 컸다. DMR검증의 결과 소득에서는 201만원이상인 집단이 보다 큰 규모를 희망하고 있어 100만원

3) 주거환경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미반이나 100-150만원인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참여정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나 매우 적극적으로 라고 평가되는 응답자의 집단이 보다 큰 규모를 원하고 있어 생활참여를 거의하지 않거나 조금하고 있는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표 9).

(2) 주거환경³⁾

주거환경은 외부환경요구와 내부환경요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의 요구는 성별($p<.01$), 학력($p<.05$), 생활참여정도($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7점척도로 측정된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외부환경이 4.78, 내부환경이 5.74로 외부환경보다는 주택내부환경의 요구점수가 더 높아 주택 내부계획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을 알수 있다.

DMR 검증결과 외부환경의 요구정도는 성별에 따라 여성의 요구가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대졸인 집단이 가장 높고 중졸인 집단의 요구가 가장 낮아 차이를 보였다. 생활참여정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의 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집단과 다른 집단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환경의 요구는 성별($p<.001$), 연령($p<.05$), 학력($p<.001$), 직업($p<.05$), 소득($p<.001$), 생활참여정도($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MR 검증결과 성별은 여성의 요구가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표 9〉 제특성에 따른 노인주거에 관한 주요구

N = 223

제 특 성		주 요 구			주 거 환 경											
		주 거 규 모			외부환경			내부환경								
변인	구 분	M	F(T)	DMR	M	F(T)	DMR	M	F(T)	DMR						
성별	남	27.37	-.39		4.60	-3.47		5.51	-4.22							
	여	27.96			4.97			5.97								
연령	40대	27.29	0.48		4.89	2.06		5.89	*	B						
	50대	27.53			4.71			5.64			4.09	A				
	60대	29.79			4.58			5.40				A				
학력	중졸이하	26.00	2.20		4.47	*	A	5.28	***	A						
	고졸	25.82			4.77			3.03			5.60	9.02	B			
	대졸	30.00			4.93						B	6.01	C			
	대학원졸이상	27.00			4.79						5.86		B			
직업	자영업	25.95	1.31		4.65	1.97		5.38	*	A						
	전분직	25.83			4.89						5.85	2.43	B			
	행정·사무직	29.62			4.75						5.78					
	고용·기능직	25.32			4.42						5.65					
	주부·기타	29.09			4.90						5.83		B			
소득	100만원 미만	25.83	*	A	4.50	**	A	5.48	***	A						
	101~150만원	25.81			2.80			A			4.77	5.35	5.69	5.97		
	151~200만원	28.51									4.92		B	6.12	B	
	201만원 이상	30.07						B			5.07		B	5.90	B	
생활참여정도	거의하지않는다	25.98	**	A	4.38	**	A	5.45	*	A						
	조금하고있다	25.25			4.26			A			4.85	5.07	B	5.77	3.77	
	많이하고있다	30.05						B			4.93		B	5.84		B
	매우적극적이다	36.67						B			5.44		B	6.58		C

*** P < .001 ** P < .01 * P < .05

연령에서는 40대와 50대이상의 집단에서 차이를 보여 40대의 요구가 더 높았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과 대학원졸 이상, 대출의 세 집단이 차이를 보였는데 대출이 내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중졸이하의 가장 낮았다. 직업은 자영업종사자보다는 전문직이나 주부·기타인 집단이 요구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고 소득은 100만원 이하의 집단과 151만원이상의 집단이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요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참여정도에서는 거의 하지않는 집단과 조금 또는 많이 하는 집단,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가하는 집단이 서로 차이를 보여 적극적으로 생활참여도가 높을수록 요구율도 높았다(표 9).

3) 주거환경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거환경요구에 어떤 요인들이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표 10, 11)과 같다.

외부환경 요구는 먼저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크기는 성별($\beta=.25$), 소득($\beta=.23$)의 순으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3%($R^2=.23$)이다. 즉, 여성일수록 또 소득이 높을수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요구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성별($\beta=.25$), 일상활동($\beta=.24$)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7%($R^2=.17$)이다. 즉, 여성일수록 또 일상생활에 참여도가 클수록 교통 및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교시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beta=.46$), 성별($\beta=.28$), 사교·스포츠·취미활동($\beta=.21$)의 순으로 36%($R^2=.36$)의 설명력을 가진다.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정도가 증가할수록 종교시설에 대한 요구점수는 .46만큼 증가하였으며, 성별은 여성일수록 종교시설 요구점수가 1.13만큼 증가하였다. 반면에 사교·스포츠·취미활동 참여정도는 높을수록 오히려 종교시설 요구점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32만큼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노인주거의 외부환경요구와 제요인과의 회귀분석표

N = 223

제 요 인	외 부 환 경								
	근린생활시설			교통 및 주변환경			종교시설		
	B	β	T	B	β	T	B	β	T
성 별	.54	.26	3.07	.46	.25	2.88	1.13	.28	3.61
학 력	.02	.08	1.01	.02	.07	.80	.03	.05	.65
소 득	2.09E-07	.23	2.94	8.22E-08	.10	1.28	8.80E-08	.05	.70
소득적 건강관리	.07	.09	1.05	.07	.11	1.20	.07	.05	.61
일상활동	.06	.07	.88	.17	.24	2.76	-.05	-.03	-.37
종교및사회봉사활동	.01	-.02	-.25	.02	.04	.41	.62	.46	5.95
사교스포츠레저활동	7.40E-03	-9.47E-.03	-.09	-.07	-.11	-.95	-.32	-.21	-2.15
회귀상수	3.20			4.15			-1.81		
R ²	.23			.17			.36		

*** P < .001 ** P < .01 * P < .05

〈표 11〉 노인주거의 내부환경요구와 제요인과의 회귀분석표

N = 223

주요구 제요인	내부환경								
	내부시설			공간계획			정원시설		
	B	β	T	B	β	T	B	β	T
성별	.69	.38	4.52	.73	.38	4.54	.68	.27	3.04
학력	.04	.17	2.03	.02	.08	.96	.08	.23	2.64
소득	7.18E-08	.09	1.17	9.36E-08	.11	1.47	1.30E-08	.01	.14
소극적 건강관리	.08	.13	1.56	.20	.29	3.45	.10	.11	1.25
일상활동	.13	.17	2.07	.15	.19	2.36	.14	.14	1.57
종교및사회봉사활동	.01	.02	.23	-.01	-.02	-.25	-.06	-.08	-.86
사교스포츠레저활동	-.08	-.12	-1.08	-.08	-.11	-.99	-.05	-.05	-.45
회귀상수	3.85			3.98			1.38		
R ²	.25			.28			.15		

*** P < .001 ** P < .01 * P < .05

한편 내부환경 요구는 내부시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beta=.38$), 일상활동($\beta=.17$), 학력($\beta=.17$)의 순이며, 이들의 설명력은 25% ($R^2=.25$)이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일 때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점수가 .69만큼 증가하며 일상생활참여가 증가하면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점수는 .13만큼 증가하고 학력이 높으면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점수는 .04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계획 요구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의 크기는 성별($\beta=.38$), 소극적 건강관리($\beta=.29$), 일상활동($\beta=.19$)의 순이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8% ($R^2=.28$)이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일 때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점수가 .73만큼 늘어나며, 소극적 건강관리정도가 증가하면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점수는 .20만큼 증가하고, 일상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계획의 요구점수는 .15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원시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성별($\beta=.27$), 학력($\beta=.23$)의 순이며 이들은 15% ($R^2=.15$)의 설명력을 가진다. 남성보다 여성일 때 정원시설에 대

한 요구점수는 .08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서 2,000년대의 노인이 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 건강, 경제, 생활참여정도에 따른 주요구를 파악하여 노인 주거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992년 5월 1일~25일에 걸쳐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223부를 유효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 분산분석, DMR 검증,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희망접촉거리는 차로 30분~1시간 대가 가장 많았으며 같이산다는 5.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녀와 같이 살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 칼라층인 전문직, 행정·사무직이 기능직, 자영업에 비해 별거의식이 강하였다. 건강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행정·사무직인 경우에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건강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계대책은 전반적으로 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은 행정·사무직과 주부들이, 소득은 101만원~150만원대가 더욱 뚜렷하며 다른 요인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2) 계 요인에 따른 주요구는 주거유형, 주거형태, 주거규모, 주거환경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노인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노인자립주택(50.7%), 중간보호주택(38.6%), 자녀와 동거(10.7%)의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노년층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노인주거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자립주택은 단독주택형(30.0%)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중간보호주택은 아파트형(22.4%)을 선호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후주거규모는 평균 27.7평이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참여정도가 적극적일수록 큰 규모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환경은 외부환경보다는 내부환경의 요구점수가 더 높아 주택 내부계획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3) 주거환경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요구는 여성인 경우, 일상활동에 적극적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학력이 높으며 일상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고, 소극적 건강관리와 일상활동에 적극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정원시설에 대한 요구는 여성이고, 학력이 높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인주거의 외·내부 모든 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갖고 있으며 일상활동 참여정도가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교통 및 주변환경과 내부시설 및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점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층의 주요구를 중심으로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제변인들과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노인주거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자료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원필, "노인을 위한 건축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 고계철, "대도시 주거단지내 노인주거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3) 고성룡,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4) 고영복, "노인과 가족 부양", 노인문제 학술세미나, 대한노인회, 1981. 5.
- 5) 광경숙, "한국가정에서의 노인부양과 전망", 원광대학교 가정학연구, 6집, 1982.
- 6) 김태일, "일본의 고령자 주택 및 복지 시설의 동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1호, 1992.
- 7) 김태훈, "남곡 SILVER TOWN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8) 대한통계협회, "도시가계년보", 1991.
- 9)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시설현황", 보사백서,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1991.
- 10) 서의택·박태환, "도시지역 노부모를 위한 복합형 거주시설의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5호, 1988.
- 11) 이연숙,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생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8.
- 12) 이재훈, "건축에서 공간 사용행태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4.
- 13) 전명숙·강순주, "노인주거계획에 한 이론적 접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제6호 통권 제44호, 1992년 6월.

- 14) 지순의 3인,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 주택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
- 15) 차미란, “노인촌의 계획 및 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6) 최정신, “노인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21집, 1989.
- 17)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1989.
- 18) 川村國田, “老人福祉産業論”, ミネルバ書房, 1987.
- 19) 馬場昌子 외 2人, “集合住宅團地老人의 住環境計劃に 關する 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近畿支部研究報告集, 昭和 60年5月.
- 20) 湯川利和 외 1人 譯, “世界の 高齢者 住宅”, 鹿島出版會, 1989.
- 21) 高阪謙次, “ヨーロッパ의 老人住宅·居住施設とその 體系의 動向”, 老人と生活 空間, ミネルバ書房, 1984.
- 22) 林玉子, “高齢化社會에서 老人의 住居環境의 展望”, 東京都老人綜合研究室, 1986.
- 23) 西山卯三 著, 住居論 頸草書房, 1977.
- 24) 扇田信 著, 住生活學 朝創書店, 1972.
- 25) David, J.H., “Housing for the Elderly”, 1984.
- 26) Lawton, M.P., “Planning and Managing Housing for the Elderly”, John Wiley, New York, 1975.
- 27) Mead, M., “A New Style of Aging”, Christianity and Crisis, 31: 240-243, 1971.
- 28) Montgomery, J.E., “The Housing Patterns of Older Families”, The Family Coordinator, Vol. 21, Jan., 1972.
- 29) ———, “Newmark, N.L. and P.J. Thompson, Self, Space, and Shelter: An Introduction to Housing”,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77.
- 30) Sherman, S.R.,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Housing Attitudes Recommendations and Moves”, Aging and Human Development, March, 1972.
- 31) Vardy, D.P., “Determinants of Interest in Senior Citizen Housing among the Community Resi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Vol. 24, No. 4. 1984.